



한국투자증권

50억 한도 스텝다운형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21일까지 홍콩 H(HSCEI),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니케이225(NIKKEI225)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ELS 10489회'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5%(6개월), 90%(12·18개월), 85%(24·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6.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만약 조기상환되지 않더라도 투자 기간 중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기준가의 5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18.0%(연 6.0%)의 수익이 지급된다. 최소 가입한도는 100만원이다. /김문호 기자

증시 하락장 속 빛나는 달러·유가 ETF

(상장지수펀드)

고유가 추세·수익률 호조세 '눈길'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화 강세 흐름"

최근 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국인 자금 이탈이 나타나면서 국내 증시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지수와 상관없이 달러 가격에 연동되는 달러 상장지수펀드(ETF)가 주목받고 있다. 수익률도 호조세다. 고유가 추세에 따라 원유 ETF 역시 주목받는 상품 중 하나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달러 지수에 투자하는 달러 ETF가 최근 3개월 동안 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해당기간 코스피가 4% 이상 하락한 것과 상반된 성적이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원·달러 환율ETF는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F 미국달러선물'과 삼성자산운용의 'KODEX 미국달러선물' 등이다. 이들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각각 2.76%, 2.85% 올랐다.

달러 ETF는 미국달러 선물지수를 기

<달러·지수 ETF 수익률 추이> (단위:%)

상품명	1주	1개월	3개월
KOSEF 미국달러선물	2.76	2.62	4.08
KODEX 미국달러선물	2.85	2.62	4.16
KODEX 코스피200	-3.6	-3.09	-4.85
KOSPI	-1.98	-1.77	-4.21

*18일 기준.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초지수로 하는 만큼 최근 원·달러 환율 급등세에 따른 수혜를 봤다. 실제 달러인덱스는 지난 18일 94.85까지 오르며 연고점을 돌파했다. 이는 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경제 규모가 크거나 통화 가치가 안정적인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산정한 미국 달러화 가치 지수다.

이에 국내 주식시장의 관심은 달러화 흐름에 쏠렸다. 전문가들은 강달러 기조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옥희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국의 감세와 인프라투자 확대 등 재정정책은 성장모멘텀을 강화시키며 달러화 강세를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미국 기업들에 대한 송환세 인하로 미국으로의 배당금 송금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도 달러화 강세 재료 중 하나다.

유로화의 약세도 강달러를 부추기고 있다. 현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자산 재투자 축소 규모는 매 분기마다 늘어나고 있는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월간 양적완화를 연말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기준금리도 내년 여름까지는 동결할 전망이다. 아울러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만큼 유로화의 약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박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달러화의 강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원유 가격이 치솟으며 이에 연동되는 원유 ETF도 덩달아 상승추세다.

최근 3개월 동안 브랜트유 선물 가격은 14% 이상 올랐다. 특히 지난 달엔 3년 반만에 최고치인 배럴 당 80달러까지 치솟았다. 지난 2016년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비(OPEC) 산유국들이 국제유가 안정을 위해 일평균 생산량을 올해 말까지 180만배럴 줄이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또 오는 22일~2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되는 OPEC회의에서의 생산규모 예상치가 기존 일평균 150만 배럴보다 낮은 수준인 일평균 30~60만 배럴 증산에 그칠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가 또 한 번 상승했다.

이에 유가에 투자하는 KODEX WTI 원유선물(H), TIGER 원유선물(H) ETF는 최근 3개월 동안에 각각 5.31%, 4.25% 수익을 올렸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가가 주춤 가운데 달러나 유가 상승에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해당 ETF에 투자하는 것도 새로운 투자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SK증권

ELS·ELB 각 1종 공모

SK증권은 오는 22일까지 주가연계증권(ELS) 1종 및 주가연계과생결합사채(ELB) 1종을 공모한다.

'제2470회 ELS'는 홍콩항셍(HSCEI) 지수 및 유로스톡스50(EUROSTOXX5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5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0% (6·12·18개월), 85%(24·30개월), 80%(36개월) 이상이면 연 6.0%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이 모두 최초기준지수의 65% 이상이면 연 6.0%의 수익을 지급하며,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지수의 6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손영지 기자

롯데정보통신, 롯데지주 출범 후 첫 IPO

상장예비심사 통과... 기업공개 추진 플랫폼·혁신 생태계 등 역량 집중

롯데정보통신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는 이른 시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정보통신은 롯데지주의 100% 자회사로 개별재무제표 기준 2017년 매출액 6913억원, 영업이익 327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은 롯데지주가 출범한 이후 자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첫 번째 상장이다. 앞서 롯데지주 측은 "기업 및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여러 회사를 대상으로 상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정보기술(IT)신기술 융복합을 통한 플랫폼 비즈니스 확대, 우수 솔루션 발굴을 통한 혁신 생태계 구축, 해외 사업 강화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사업 분야에서는 디지털 물류(Digital Transformation)를 통한 고객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솔루션, A

I 예측 분석 및 개인 추천 서비스, 블록체인인증 솔루션, 스마트팩토리 등을 적극 추진한다.

글로벌 사업도 적극 공략한다. 기존 강점을 가진 금융,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시장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유통과 전자결제 등은 인도네시아 시장을 공략하는 등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마음속 롯데정보통신 대표이사는 "상장을 통해 신사업은 물론 해외시장 확장에 나설 것"이라며 "상장 일정에 차질 없도록 노력하여 경영의 투명성



/롯데정보통신

을 강화하고 기업 및 주주 가치를 극대화 하여 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앞줄 왼쪽 여섯번째)이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대우, 핀테크 허브 업무협약 개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18일 포시즌스 서울 호텔에서 '미래에셋 디지털 혁신 플랫폼 출범 및 핀테크 허브 업무협약식'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과 송준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김대운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전길수 금융감독원 선임국장, 정유신 한국핀테크지원센터장 등 다양한 분야의 핀테크 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핀테크 기업들과의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미래에셋 디지털 혁신 플랫폼'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으며, 기존 협약식과 다르게 디지털 서명을 통해 제휴 기관들과의 업무 협약식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 체결로 미래에셋대우는 KOTRA, 한국인터넷진흥원, 서울대기술지주회사, 고려대기술지주회사, 코스콤, KT, PwC, 스파크랩, KIC실리콘밸리, KIC워싱턴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총 12개 기관이 핀테크 허브 제휴사로 상호 협력하게 됐다.

이번 협약식에 참여한 미래에셋대우 최현만 수석부회장은 "미래에셋 디지털 혁신 플랫폼은 증권사 단독으로는 최초로 운영되는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핀테크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

삼성증권 '아이들의 꿈마루' 1호 리모델링

삼성증권은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과 함께 지난 18일 '아이들의 꿈마루' 2018년 1호 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을 서울 양천구 꿈나무들의 동지 지역아동센터에서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아이들의 꿈마루'는 삼성증권이 2014년부터 지역아동센터의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교육을 위한 기자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아동센터 중 안전사고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 개보수를 하지 못한 채 운영되어 오고 있던 센터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

2018년 첫 리모델링한 지역아동센터는 양천구 등촌동 '꿈나무들의 동지' 지

역아동센터로, 오래된 벽지·바닥 등의 환경과 노후화된 교육 기자재도 아동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어왔다. 삼성증권은 화장실, 주방 등 넓은 공간을 리모델링 해 아동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 유영덕 지역아동센터 관장 등 양 기관 관계자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참석했다.

구성훈 삼성증권대표는 "미래의 주인공인 아이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건강한 꿈을 키워 나가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다. 삼성증권은 2014년부터 25개 시설을 리모델링 했으며, 지속적으로 '아이들과 꿈마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문호 기자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왼쪽 두번째)가 '아이들의 꿈마루' 2018년 1호 센터 리모델링 개소식에서 관계자들과 포즈를 취했다. /삼성증권



키움증권

한화건설 채권 연 4.1% 특판

키움증권은 한화건설 채권을 세전 연 4.1%에 판매한다.

한화건설 채권은 신용등급 BBB+ 안정적(5월 30일 기준·한국신용평가), 만기는 2019년 12월 14일, 연수익률은 세전 4.1% 수준이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한화건설은 풍부한 수주잔고와 확대된 계열공사물량, 국내 주택 및 계열공사의 실적 기여로 영업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해당 채권의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표채 방식이다. /손영지 기자